

 POSRI 보고서

2014년 하반기 철강 원료가격 전망

허진석 수석연구원, 경제·정보분석센터 (jshuh@posri.re.kr)

장원익 수석연구원, 경제·정보분석센터 (wjang@posri.re.kr)

김정수 수석연구원, 경제·정보분석센터 (ninebean@posri.re.kr)

신기수 수석연구원, 경제·정보분석센터 (ksshin@posri.re.kr)

[목 차]

1. 신흥국 경기 약세로 철강시황 회복력 미약
2. 철광석 가격 공급증가 압력으로 약보합세 전망
3. 원료탄 가격 장기 약세에 따른 공급 감소로 소폭 반등
4. 고철 가격 소폭 반등 반면 합금철 약세 기조 지속

Executive Summary

-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국제 철강가격은 하반기에는 유럽, 중국 등의 산업생산 회복세로 소폭 상승 전망
 - 동남아·러시아 등 일부 신흥국의 불안요인 상존하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및 중국의 회복세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다소 상승
 - 자동차, 가전 등 수요산업 생산활동 다소 회복세 반면 철강 공급과잉 지속으로 하반기 중국 열연 내수가격 당초 예측치 대비 대폭 하향 조정
- 하반기에 철강경기 회복 지연으로 철광석, 원료탄 가격 약보합세 예상
 - 중국의 평균 생산원가(U\$ 110/톤 내외) 이하인 U\$ 90달러대(中 CFR)까지 급락한 분광 가격은 하반기에도 수요 증가는 미미한 반면 메이저사의 생산 확대로 U\$103/톤 수준에 그칠 전망 (2분기 U\$103)
 - * BHPB, FMG 등 메이저 공급사의 생산능력 확장 프로젝트가 잇달아 완공되면서 Big 4사의 올해 공급 증가량은 약 1.2억톤 수준으로 추정
 - 국제 원료탄 시장은 공급과잉 가운데 금년 들어 중국의 수입 감소로 6월 강점탄 가격이 U\$ 112/톤(호주 FOB)까지 하락하였는데 하반기에도 수요 증가세 둔화 등으로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 (하반기 U\$ 116/톤)
 - * 최근 Vale, Rio Tinto 등이 모잠비크의 원료탄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축소 움직임이 있어 이는 향후 공급불안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
- 고철, 합금철 등 제강원료 가격 수요 약세로 하반기에 미미한 반등 전망
 - 금년 들어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고철 가격은 바닥세에 도달 인식 확산 및 전기로 메이커의 수요 다소 회복 등으로 소폭 상승
 - * #1 HMS 동아시아 수입가격 (CFR) : U\$ 371/톤(2Q) → 376(하반기)
 - FeSi, FeMn 등 합금철 가격 하반기에 약세 기조나 공급 불안시 상승 예상

< 하반기 철강 원료가격 전망 (U\$/톤) >

	'13 년	'14 년				
		1/4	2/4	3/4	4/4	연평균
철광석	136	120	103	100	105	107
원료탄	148	122	113	115	118	117
고철	389	378	369	372	379	375
FeSi	1,402	1,410	1,383	1,366	1,374	1,383
FeMn	1,452	1,442	1,410	1,400	1,418	1,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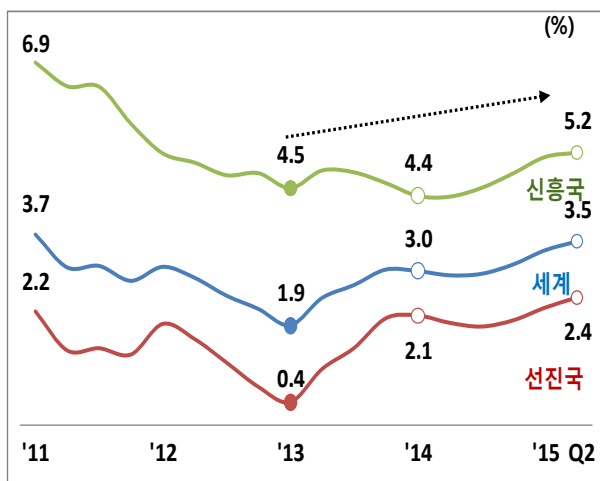
주 : 철광석(분광 Fe 62%, 중국 CFR), 원료탄(강점탄 호주 FOB), 고철(#1 HMS 동아시아 수입 CFR), FeSi(중국 Spot 수출 FOB), FeMn(Hi-Carbon 일본 수입 CFR)

자료 : POSRI, 2014.7

1. 신흥국 경기 약세로 철강시황 회복력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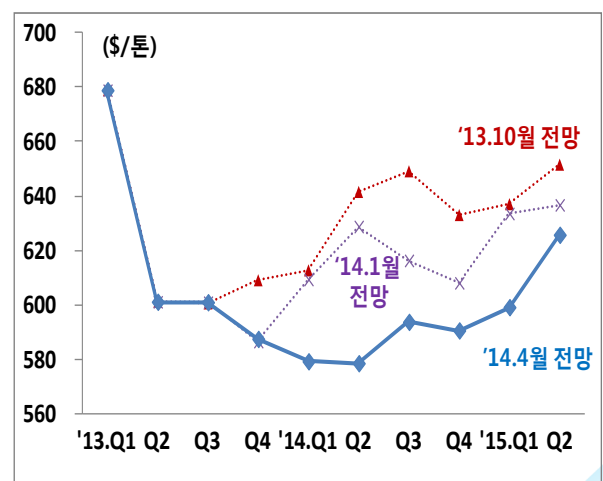
- '14년 상반기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라 철강가격이 약세 지속, 하반기에는 유럽·중국 중심 산업생산 회복으로 소폭 상승 예상
- 1분기 선진국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면서 글로벌 경제 일시 소강
 - 유럽 회복세 불구, 미국경기 둔화와 일본 소비율 인상 여파 등에 기인
 - 하반기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불구 경기 호전 및 유럽의 회복세 지속 등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률 상반기 대비 다소 상승 전망
- 중국은 일부 경기부양책 불구하고 각종 규제 강화 등으로 '上低下高' 반면 동남아·러시아 등 일부 신흥국 정치적 이슈로 성장 둔화 전망
 - 중국, 정부의 개혁, 기업 구조조정,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14년 7.5% 성장률 달성 불확실 반면, 제도개혁 및 통화완화 등 선별적 경기부양
 - 태국의 정치불안 및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의 경제 제재로 신흥국 위기 지속 반면 인도의 정치적 리스크는 다소 축소
- 수요산업 생산활동 다소 회복세 반면 철강 공급과잉 지속으로 하반기에도 철강가격 약보합세 전망
 - 자동차, 가전 등 일부 수요산업 호조로 글로벌 철강수요 전년비 3.1% (중국 3.0% ↑)의 완만한 증가 반면 중국 중심 공급과잉 압력 지속
 - 수급밸런스를 나타내는 가격 선행지표인 재고순환지표는 수요 둔화로 인한 재고 증가로 재 하락 추세인 가운데 향후 시황에 대한 시장의 체감경기가 악화되면서 단기간 내에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 미국 철강가격, 상반기 강세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Gap 확대로 하반기에 조정 가능성 큼
 - 중국 열연 내수가격, 수요 둔화 및 공급과잉 우려로 당초 예측보다 하반기에 대폭적인 하향 조정 예상

<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 >



자료 : Global Insight('14.5)

< 중국 열연 내수가격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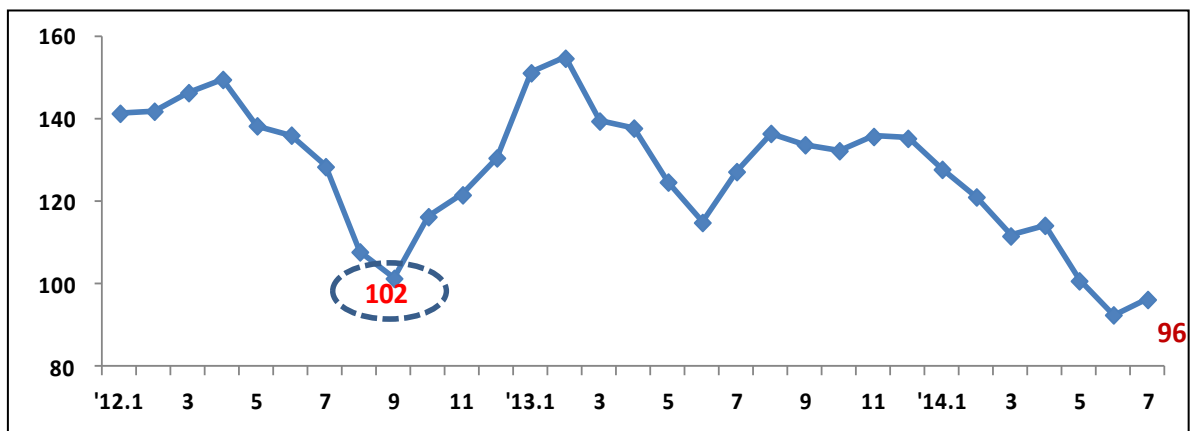
자료 : CRU('14.4)

주 : 중국은 증치세 포함

2. 철광석 가격 공급증가 압력으로 약보합세 전망

- 조강생산 증가세 둔화로 철광석 수요는 부진 반면 메이저 공급 확대로 가격 약세 지속
- 철광석 가격은 연초 U\$ 130대/톤에서 하락하기 시작하여 5월 들어 한때 U\$ 91/톤까지 하락하는 등 '12년 9월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
 - '12년 9월에는 남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글로벌 및 중국 철강경기가 침체되면서 한때 U\$88/톤까지 급락

< 최근 철광석 수입가격(Spot)동향(\$/톤) >



자료: Platts

주: 가격은 Fe 62% CFR China 월평균 기준, 7월 가격은 7.1~7.18일까지 평균가격

- 최대 철광석 소비국인 중국의 조강생산 증가세는 대폭 둔화되는 반면, Vale 등 Big 4사의 공급량은 크게 증가
 - 중국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중국 조강생산이 1~5월까지 전년동기비 2.7% 증가에 그치면서(과거 5년 연평균증가율은 9.5%) 철광석 수요도 동반 부진
 - 반면 BHPB의 Jimblebar 광산 등이 완공되면서 Big 4사의 1분기 생산량은 전년동기비 17.4% 증가
- 한편 중국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등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자금난에 직면한 유통상들이 수입 철광석을 금융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철광석에 대한 가수요가 발생
 - 유통상들은 철광석을 수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수입 철광석을 판매하여 확보한 자금을 펀드 등에 투자
 - 철광석 실수요는 부진한 가운데, 가수요에 따른 철광석 수입 급증(1~5월까지 전년동기비 18.8% 증가)으로 항만재고가 1억 톤을 상회

- 하반기에 철강경기의 미미한 회복세로 철광석 수요는 소폭 증가 반면 공급 확대 압력은 지속
- BHPB, FMG 등 Big 4사의 적극적인 생산능력 확장으로 올해 공급 능력 총 증가량은 약 1.2억톤에 달할 전망

< Big 4의 2014년 생산 계획(백만톤)>

회사명	'13	'14	증가량	'14년 완공 프로젝트
Vale	301	312	11	Carajas 40백만톤 확장 (환경허가지연으로 일부 가동)
Rio Tinto	265	290	25	2.9억톤 체제 완료
BHPB	194	228	34	Jimblebar 35백만톤
FMG	99	146	47	Kings 40백만톤

자료: 각 사 발표자료 종합

- 하반기 철광석 가격은 2분기와 비슷한 수준 예상
- 메이저사의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낮은 가격 수준에서는 생산원가가 높은 일부 중국 광산들이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여 추가적인 큰 폭의 가격 하락은 없을 전망
 - 중국의 철광석 광산 가동률은 '13년 하반기 78%에서 '14년 6월 기준으로 64%로 저하됨
 - 한편 호주 최대 철광석 수출항인 Hedland항 선장 및 갑판원 노조 파업에 따른 물류 차질 발생시 공급불안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
- 그러나 Big 4사의 생산 확대 등으로 공급 증가가 수요 확대를 상회하고 있어 대폭적인 철광석 가격 상승도 어려운 상황
 - 이에 따라 2분기 U\$103/톤, 3분기 U\$100/톤, 4분기 U\$ 105/톤으로 예상
 - 한편 중국 Custeel은 3분기 U\$ 105~110/톤, 4분기 U\$ 110~115/톤, Macquarie는 하반기 U\$ 110~115/톤 수준으로 전망

< 기관별 분광 가격 전망(U\$/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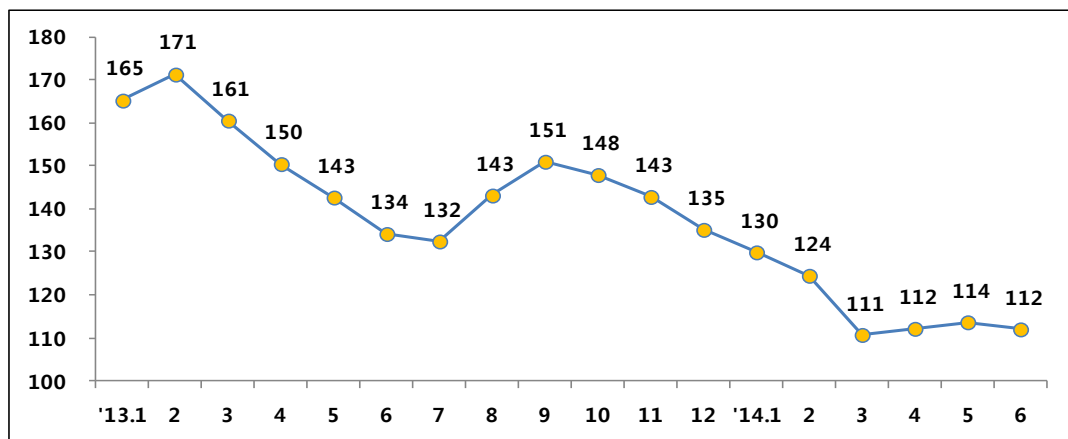
전망기관	'13	'14.1Q	2Q			3Q	4Q	'14
			4	5	6			
POSRI	136	120	103 (114 101 93)			100	105	107
MBR	136	123	104			109	117	113
Macquarie	136	120	103			100	115	110

주 1) POSRI, Macquarie는 Fe 62% CFR China, MBR은 Fe 63.5% CFR China
빨간 색 표기는 전망치임
2) POSRI 및 타 기관의 전망시점은 '14년 6월

3. 원료탄 가격 장기 약세에 따른 공급 감소로 소폭 반등

- 최근 원료탄 시장은 공급과잉 국면이 장기화 되면서 장기간 가격 하락세를 지속
- 현재 원료탄의 과잉 공급량은 약 25백만톤/년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과잉 해소에 최소 1년 반 소요 전망(Macquarie, '14.5)
 - '00년대 중후반, 중국 조강생산 급증으로 원료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원료 공급사, 철강사들이 경쟁적으로 원료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 그때 시작된 프로젝트가 완공되면서 최근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었으나 중국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원료탄 수요 증가세도 동반 둔화
 - 이에 따라 5월 원료탄 가격(월평균 강점탄) 톤당 114달러로 지난 '07년 5월 (109달러)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

< 최근 원료탄 가격 월별 추이 >



주 : Spot 가격 기준 (강점탄, 호주 FOB)

자료 : Platts

- 국제 원료탄 시장의 공급과잉 상황 가운데 금년 들어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로 가격 약세 지속
 - 최근 위안화 약세로 중국 자국 내에서 생산된 원료탄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입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
 - * '13년에 중국의 원료탄 수입(75백만톤)은 '12년 대비 41% 증가했으나 '14년 1분기에는 전년동기비 24.5% 감소한 13백만톤을 기록
 - 이에 따라 생산의 대부분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몽골의 원료탄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어, 몽골 원료탄 공급사의 자금난 심화로 현재와 같은 낮은 가격이 지속될 경우 추가 광산 폐쇄 불가피 예상
 - 한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미국탄의 생산 및 수출이 감소하면서 원료탄 해상 물동량 중 미국의 비중이 축소되는 추세이나 미국탄의 공급 감소 규모가 약 10백만톤으로 공급 과잉 해소에는 역부족 평가

□ 바닥권에 도달한 원료탄 가격은 하반기에 생산 축소에 따른 공급 과잉 완화로 다소 반등 예상

○ 미국·몽골 생산 감소, 고비용 광산 폐쇄 및 이에 따른 메이저 공급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향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예상

- '14년 1분기 미국 수출(15,303천톤)은 전년동기비 7.2% 감소, 동기간 몽골 수출(2,025천톤)은 21.8% 감소
- 한편, 최근 가격 약세 지속에 따라 Vale, Rio Tinto 등은 모잠비크의 원료탄 개발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재검토 하는 등 투자 축소 움직임이 있어 이는 향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

○ 그러나 공급 과잉의 단기간 내 해소가 어렵고, 원료탄의 수요 증가율 또한 둔화될 것으로 보여 큰 폭의 가격 상승은 어려울 전망

- 호주 Bureau of Resources and Economics (BREE)는 '17년에도 공급 과잉 물량이 7백만톤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치를 제시('14.3)
- '14년 이후 중국의 연평균 조강생산 증가율이 1대%로 둔화되어 원료탄 수요의 동반 둔화가 불가피
- 또한 원료탄의 경우, 호주 동부에 홍수가 발생하여 생산 차질을 빚을 경우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했었음. 그러나 최근에는 홍수 발생이 없었을 뿐 아니라, 설비 확충 등 대책 마련으로 홍수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

□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관들은 '14년 원료탄 가격을 기존 전망 대비 하향 조정

○ 3분기 U\$ 115/톤, 4분기 U\$118/톤으로 2분기 대비 소폭 상승 예상

- Macquarie는 당초 3, 4분기 계약 가격을 각각 U\$150/톤, U\$145/톤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U\$120/톤, U\$125/톤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
- 올 초까지만 해도 올해 원료탄 가격 향방에 대한 전망이 기관에 따라 달랐으나 2분기 들어 모두 전년대비 하락으로 예측치를 수정

< 기관별 원료탄 가격 전망(U\$/톤) >

전망기관	구분	'13	'14.1Q	2Q			3Q	4Q	'14
				4	5	6			
POSRI	Spot,HCC	148	122	113 (112 114 112)			115	118	117
MBR	Spot,HCC	148	122	118 (112 121 120)			119	109	117
Macquarie	BM, HCC	159	143	120			120	125	127
JP Morgan	BM, HCC	159	143	120			125	130	130
Credit Suisse	BM, HCC	159	143	120			-	-	133
RBC	BM, HCC	159	143	120			-	-	142

4. 고철 가격 소폭 반등 반면 합금철 약세 기조 지속

□ 고철가격, 바닥세 근접 및 수요 다소 회복으로 소폭 상승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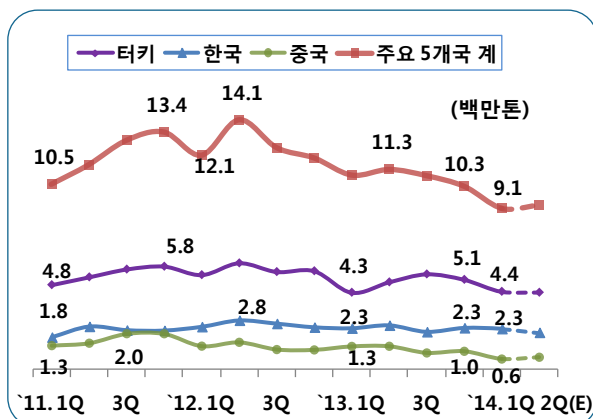
○ 주요국의 고철 무역 규모는 수입 수요 부진으로 감소 추세

- 금년 1~4월 중 주요 5개국 수입은 전년동기비 16.8% 감소함. 이 중 터키의 수입은 전년동기비 1.3% 감소에 불과했으나, 한국 -6.3%, 대만 -13%, 인도 -43%, 중국 -57% 등 아시아권은 큰 폭으로 감소함

○ 고철 가격은 장기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에는 등락을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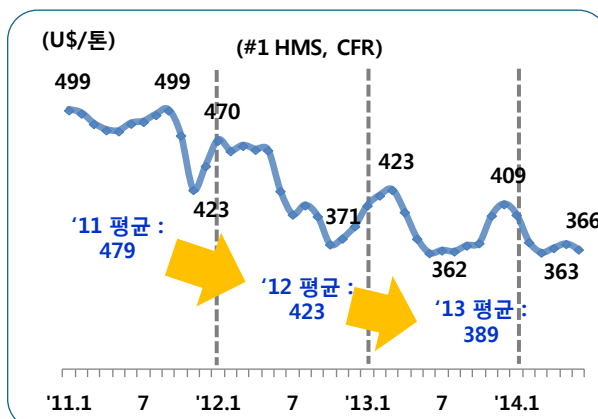
- 3월 가격은 작년 연말 대비 11% 급락하여 '11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접근, 4~6월중에는 제강사들의 가격 인하 압박 가운데 성수기 도래에 따른 공급사들의 반발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미·일·러 고철 수출 >



주: 5개국에는 인도, 대만 포함 자료: ISSB

< 동아시아 고철 수입가격 추이 >



자료: MBR('14. 5), POSRI

○ 하반기 중 고철 가격은 수입 수요 회복으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

- 가격 저점 도달 인식 확산 및 전기로 메이커들의 재고 수준 저하에 따른 수입 수요 회복 기대로 하반기 가격 US\$ 376/톤으로 소폭 상승

* 타 기관 전망: MBR, 3분기 하락후 4분기 소폭 회복

< 기관별 동아시아 고철 수입 가격 전망(US\$/톤)>

전망기관	'13	'14.1Q	2Q	3Q	4Q	'14
POSRI	389	378	371	372	379	375
MBR	389	378	371	365	372	372

주 1) 가격은 CFR, #1 HMS 기준 2) POSRI 및 타 기관의 전망시점은 '14년 7월

□ 합금철 가격 약세 기조나 공급이 불안할 경우 반등 예상

○ FeSi, 세계 1·2위 수출국 관련 공급 불안정 요인 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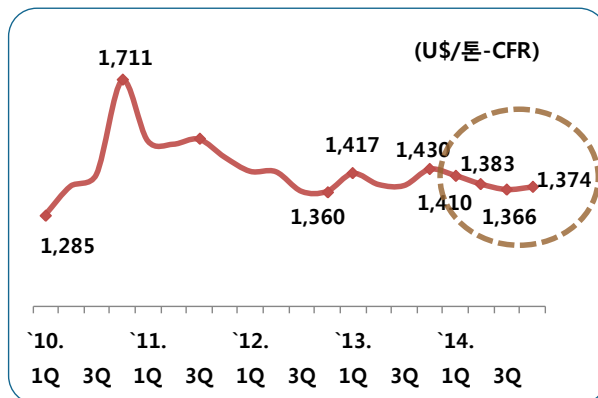
- 세계 최대 FeSi 수출국인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들의 경제 제재 강화시 공급불안 가능성이 있음
- 중국-베트남간의 영토 갈등에 따른 국경 통제 강화시, 중국산 우회 수출물량(밀수품) 감소로 고가의 정식 통관품(수출세 25% 부가) 사용 증대 불가피

* '13년 중국산 수입량 중 밀수품 비중: 일본의 수입의 25%, 한국 53%, 대만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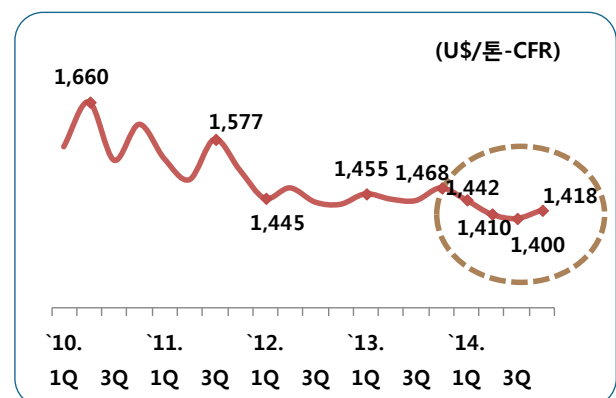
○ FeMn, 공급업체의 감산통한 물량 조절 가능성과 함께 세계 3위 수출국인 우크라이나 정정 불안에 따라 공급여건이 불확실해 질 가능성

- '12년 세계 우크라이나 세계 수출시장 점유비는 12.9%

< 중국 HC FeSi 수출가격 전망 >



< 일본 FeMn 수입가격 전망 >



자료 : POSRI, CRU

[참고자료]

안병국 외, 포스코경영연구소, "중국 철강브리프", 최근호

포스코경영연구소, Global Steel Market Outlook 등 GIH, 최근호

AME, " Strategic Market Study Iron Ore 2014.1Q", 2014.5

Coal Inside, "Weak steel dents met outlook", 2014.3

CRU, "Bulk Ferroalloys Monitor" 최근호

Custeel, Mysteel, "하반기 시황 인터뷰 보고서", 2014.5

Deutsche Bank Markets Research "Copper & Iron Ore: Are Chinese Financing Deal Fears Overdone?", 2014. 3

Global Insight, 2014.4

ICT, "Seaborne met coal steady", 2014.4

ISSB, "World Steel Statistics Monthly" 최근호

Macquarie Research, "Commodities", 최근호

Metal Bulletin Research, "Weekly Market Tracker", 2014.5

Platts, "SBB Daily Briefing", 최근호

Tex Report, "Mongolia's Export Industry of Met coal gets mired", 2014.4

www.bhpbilliton.com

www.vale.com

www.riotinto.com